동양음악 제39집 | 123~159쪽 | 2016. 6

20세기 전반 여류명창 조농옥

신 은 주
(전북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차 례〉

1. 머리말
2. 조농옥의 생애와 음악 활동
   1) 생몰년 및 가족 관계와 소리 입문
   2) 20세기 전반 음악 활동
3. 맺음말

【국문초록】

20세기 전반 우리 전통 음악 여러 분야에서는 여류 음악인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문화 흐름을 주도하였다. 판소리 분야에서도 여성 창자들이 대거 등장하여, 박록주·이화중선·김소희와 같은 대표적인 여류명창들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등장한 수많은 여류 명창들 중 오늘날 알려져 있는 인물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본고의 대상이 되는 조농옥 역시 라디오방송과 극장 공연·음반 발매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며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으나, 1950년 이후 일찍 활동을 접으면서 오늘날 국악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조농옥에 대해서는 그간 박황이 남긴 기록을 중심으로, 그녀의 본명은 조초향이며, 1920년 서울에서 태어나 8살 무렵부터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소리를 배우기 시작하여, 조선성악연구회 직속 단체인 창극좌에서 활동하였고, 송만갑과 정정렬에게 학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농옥의 본명은 조판순이며, '초향'은 '농옥'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기 전에 한 때 사용한 예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울 출신이 아니라 1920년 무렵 전라북도 남원에서 출생하여 1930년대 전반 본격적인 소리 학습 및 활동을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였고, 소리를 처음 접한 것 역시 서울이 아니라 남원이다. 남원에서의 소리 학습은 남원권번의 김정문에게서 학습하였을 것

이라 추정되나 정확한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고, 서울에 상경한 이후에는 송만갑과 정정렬뿐 아니라 이동백에게도 소리를 배웠다.

조농옥은 조선성악연구회 단원으로, 조선성악연구회 직속단체인 창극좌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조선성악연구회의 정기공연이나 창극 공연 관련 기사에서 조농옥의 이름이 확인되지는 않고, 다만 1936년과 1940년 조선성악연구회 주최로 열린 구제명창대회에서만 조농옥의 이름이 확인된다. 즉, 그녀가 조선성악연구회 창립 당시부터 함께 하였거나, 창극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은 아닌 듯하다.

조농옥은 1935년 4월 14일을 시작으로 1945년까지 꾸준히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였으며, 1937년에는 콜럼비아 음반회사에서 단가 두 곡과 판소리 8대목을 녹음하였다. 단가 중에서는 〈강상에 둥둥〉을 가장 즐겨 부른 점에서 정정렬에게 소리를 배웠다는 것이 확인되며, 그 외에도 〈남원산성〉, 〈어화청춘〉, 〈대장부한〉, 〈운담풍경〉 등 9곡의 단가를 레퍼토리로 삼았다. 판소리는 춘향가를 비롯하여 다섯 바탕의 눈대목들을 고루 배웠으며, 춘향가 중 〈춘향모 나오는데〉 부분을 즐겨 불렀다. 여류 창자들이 흔히 잘 부르지 않는 적벽가에도 능하였던 바, 〈동남풍〉과 〈활쏘는 데〉는 음반으로 남겼고, 〈삼고초려〉는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여 총6회나 소리하였다. 즉, 그녀는 당시의 여느 권번 출신 여류 판소리 창자들과 비교하여 소리의 공력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남도잡가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보렴〉 및 민요도 잘 불렀다.

1950년대 이후에는 동생 조금앵・조성실(조금례)과 함께 여성국극 활동을 주로 하였고, 1971년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조농옥의 동생 조금앵 역시 여성 국극의 대표적인 인물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2012년 별세하였고, 현재는 조성실이 옥당국극보존회에서 간간이 활동하고 있다.

【주제어】 조농옥, 조금앵, 조선성악연구회, 창극, 국극, 여류명창

1. 머리말

20세기 전반 우리 전통 음악은 19세기와 비교하여, 향유 레퍼토리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그 음악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은 전면적으로 달라졌다.[1] 특히 음악을 담당하던 이들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여성음악가의 본격적인 등장을 꼽을 수 있다. 19세기까지 궁중의 악사와 악생들은 물론이요, 민간의 중인 가객과 율객, 판소리 창자들 대부분이 남성들이었고, 여성음악가라고 하면 궁중이나 관청에 소속되어 있던 기녀와 삼패, 사당으로, 모두 천민 출신들이었다. 이들이 담당하던 음악 역시 다양하지 않아, 풍류계 음악이나

1) 권도희, 『한국 근대음악 사회사』(민속원, 2004), 73쪽.

입창, 좌창과 같은 잡가가 전부였다.[2] 그러나 20세기 전반 전국적으로 기생조합이 생겨나고, 각 지방의 기생들이 대거 상경하여 서울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여성음악계가 성장하게 된다.

판소리 분야에도 여성 창자들이 대거 등장하여, 박록주・이화중선・김소희와 같은 대표적인 여류명창들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등장한 수많은 여류명창들 중 오늘날 알려져 있는 인물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20세기 전반 뛰어난 음악 기량을 보유하고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였음에도, 이후 활동을 일찍 접거나 혹은 일부 지방에서만 활동을 이어간 이들의 경우에는 그들에 대한 기록이 남지 않아 이후의 행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세기 전반 음악계에서 한 축을 담당하였던 여류 음악인들 및 그들이 보유하였던 음악은 당시는 물론이요 오늘날 우리 음악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들 및 이들 음악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풍부한 음악 문화와 흐름을 설명하여 주는 귀한 자산이고 역사다.

이에 본고는 20세기 전반 활발히 활동하였던 여류명창의 한 사람으로, 방송과 극장 공연・음반 발매 등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으나, 1950년 이후 일찍 활동을 접으면서 오늘날 국악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조농옥'이라는 판소리 창자의 생애와 음악 활동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조농옥의 생애와 음악 활동

1) 생몰년 및 가족 관계와 소리 입문

조농옥은 1930~40년대 활발하게 활동하였던 것에 비하여, 그녀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 다만, 아래의 글에서 소략하게 조농옥에 대해 소개하고

2) 위의 글, 75쪽.

있다.

박 황, 「唱樂才技의 旗手들: (13)조농옥」, 『판소리소사』, 신구문화사, 1976, 158~159쪽.

장사훈, 『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1984, 676쪽.

최동현, 「SP시대의 판소리 여류 명창들4 음반 해설서」, 신나라, 1994, 16쪽.

윤석달, 「SP시대 인기 명창들, 신금홍・권금주・신숙・조농옥」, 『명창들의 시대』, 작가정신, 2006, 269~271쪽.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 보고사, 2012, 1670쪽.

조농옥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앞서는 것은 박황의 『판소리소사』로, 조농옥에 대한 이후의 글들은 대부분 박황이 정리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먼저, 박황의 글 중 조농옥의 생몰년 및 출신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조농옥(1920~1971)은 서울 태생으로 본명은 초향(蕉香)이다. 그녀의 집이 돈의동(敦義洞)의 조선 성악 연구회 바로 이웃이었던 관계로, 이미 8세에 성악 연구회를 다니면서 송만갑에게 소리 공부를 시작하였다. … 후략[3]

그러나 위 문장에는 많은 오류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녀의 출생 연도이다. 1920년 출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1918년[4]이라는 기록도 있고, 조농옥의 동생인 조금앵과 조성실(조금례)의 증언에 의하면 1921년생으로 추정된다.[5] 즉,

3) 박황, 『판소리소사』(신구문화사, 1976), 158쪽.
4) 제정화, 「벽소 이영민의 순천가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96쪽.
5) 조농옥과 그 아래 동생인 조농월이 2살 터울이고, 조농월과 그 아래 조금앵이 7살 터울인데, 조금앵이 1930년생이므로 조농옥은 그보다 9년이 앞선 1921년생이 된다.
조금앵 증언: 손태도, 「1920~60년대 전통 공연물들에 대한 면담 자료」, 『역사민속학』 제21호(한국역사민속학회, 2005), 463~464쪽.
조성실 증언.(1차 면담: 일시－2015년 10월 9일 11시. 장소－옥당국악국극보존회. 진행－신은주 / 2차 면담: 일시－2016년 4월 11일 14시. 전화 인터뷰)

조농옥의 출생 연도에 대해 1918년과 1920년, 1921년의 세 가지 의견이 있고, 이 중 어떤 시기가 맞는지 좀 더 확실한 연구가 필요하다.[6]

두 번째로, 조농옥의 본명에 대한 부분이다. 박황은 그녀의 본명을 초향(蕉香)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조농옥의 동생인 조성실의 증언에 의하면 조농옥의 본명은 조판순이다. 조농옥은 9남매 중 둘째 딸로, 부친 조정두와 모친 유달녀에게서 났다. 부모는 평범한 농사꾼이었으며, 음악을 하지는 않았다. 형제는 조귀인・조농옥・조농월・조창규(남)・조금앵・조성실・조창환(남)・조창용(남)・조창선(남)[7]으로, 조농옥의 언니 조귀인[8]을 제외하고, 조농옥의 여동생인 조농월・조금앵・조성실은 모두 그녀를 좇아 예술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모두 예명을 사용하였고, 본명은 각각 조판순(조농옥)・조계선(조농월)・조윤순(조금앵)・조산홍(조성실)이며, 조성실은 한때 조금례라는 예명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성실은 '초향'이라는 이름 또한 들어본 듯 하다고 하였는데, 조농옥이 '농옥'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기 전에 '초향'이라는 예명을 잠시 사용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다.

세 번째로, 그녀의 출신지에 대한 기록이다. 박황은 조농옥을 서울 태생이라 하였고, 이 기록을 좇아 대부분의 자료에서도 조농옥을 서울 출신으로 기록하고 있다.[9] 한편, 전라북도 남원 출신이라는 기록도 있는데,[10] 실제로 조농옥의 부친은 전남 구례 출신이고, 조농옥은 남원에서 출생하였으며, 이후 서울로 이주하였다. 즉, 조농옥을 서울 태생이라고 한 박황의 기록은 수정되어야 한다.

조농옥이 서울로 이주한 시점에 대해서는 동생 조금앵과 조성실의 증언이 엇갈리는데, 조금앵(1930년생)은 자신이 출생하기 전에 가족이 모두 서울로 이사

6) 조금앵의 증언은 필자가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2012년 조금앵이 별세하였으므로 증언 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불가하다. 조성실의 증언은 최근 필자가 직접 진행한 것이나, 그녀 역시 연로하고, 조농옥과는 나이 차이가 많아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재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7) 배우 조춘.

8) 조귀인은 큰어머니에게서 난 이로, 둘째인 조농옥 및 그 동생들과는 이복 관계이다.

9) 장사훈, 『국악대사전』(세광음악출판사, 1984), 676쪽; 최동현, 「SP시대의 판소리 여류 명창들4 음반 해설서」(신나라, 1994), 16쪽.

10) 송방송, 『한겨레음악대사전』(보고사, 2012), 1670쪽. 서울 또는 남원 출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여, 언니와 오빠들은 남원에서, 자신은 서울에서 났다고 하였고,[11] 조금앵의 바로 아래 동생인 조성실(1932년생)은 자신 역시 남원에서 태어났고 그 이후에 서울로 이사하였다고 한다. 즉, 조금앵과 조성실의 증언이 서로 차이가 있어,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한 시점이 조금앵의 출생 전인 1930년 이전인지, 조성실이 출생한 1932년 이후인지 정확하지 않다. 다만, 조성실이 조농옥과 나이 차이가 많아 언니에 대한 정확한 것을 기억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 조농옥이 서울에서 처음 소리를 배운 것이 아니라 남원에서 먼저 소리를 학습하였고, 조농옥의 소리 학습 및 활동에 따른 이유로 자신이 태어난 직후 서울로 이사하였다고 분명하게 증언한 바, 1932년 이후 이주설에 무게를 둘 수 있다.

네 번째로, 조농옥이 소리에 입문하게 된 계기에 대한 부분이다. 박황의 기록에는 조농옥의 집이 돈의동의 조선성악연구회 근처였던 관계로 8세부터 자연스럽게 성악 연구회를 다니면서 송만갑에게 소리 공부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조성실의 증언에서 명확히 한 바와 같이 조농옥의 소리 학습은 남원에서 시작되었다. 즉, 조농옥이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처음 소리를 접하였다는 박황의 기록은 수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성악연구회는 1934년 창립되었으므로 조농옥의 나이 8세에는 조선성악연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선성악연구회는 출범 당시 공평동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후 관훈동으로 옮겼다가, 낙원동을 거쳐 익선정에 자리하였다.[12] 그리고 조농옥과 그녀의 가족이 서울로 이주하여 정착한 곳은 경운동으로, 조창규・조금앵・조성실은 명동에 위치하고 있던 계성학교,[13] 조성실의 동생들은 종로의 교동학교[14]를 다녔으며, 교동학교 골목

11) 손태도, 앞의 글, 464쪽.

12) 김성혜, 「조선성악연구회의 음악사적 연구」, 『한국음악학논집』 제1집(한국음악사학회, 1990), 331쪽.

13) 계성학교는 1882년 조선교구 제6대 교구장인 Felix Clair Ridel(한국명: 李福明)이 인현서당으로 처음 설립하여, 이듬해인 1883년 서당을 종현(현재의 명동)으로 옮기고 종현서당이라 불렀다. 1909년 학교 설립인가를 얻어 계성학교로 이름을 개칭, 1924년 계성보통학교로 교명을 개칭하고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였다. 현재는 계성초등학교로, 서초구 신반포에 위치하고 있다.(계성초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http://www.gyeseong1882.es.kr/)

14) 교동학교는 1894년 관립교동소학교로 개교하여, 1910년에는 교동공립보통학교로 개칭, 1938년 경성교동공립심상소학교를 거쳐, 1941년 경성교동공립국민학교로 개칭되었다. 현재는 서울교동초등학교로,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해 있다.(서울교동초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http://www.skyodong.es.kr/)

에 살았다고 한다. 즉, 박황의 기록에 등장하는 '돈의동'이라는 지명 역시 조선성악연구회는 물론, 조농옥과 그녀의 가족이 거주하였던 동네와 맞지 않는다.

남원에서 조농옥의 소리 학습 과정과 관련하여, 그녀가 송만갑에게 소리를 배우기 이전 김정문 문하에서 먼저 학습하였다는 주장이 있다.[15] 김정문은 1920년부터 남원권번의 소리선생으로 있다가 1935년 별세하였으므로,[16] 조농옥이 남원에 거주하였을 당시 남원권번에서 김정문에게 소리를 배웠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동생 조성실은 조농옥과 11살 터울이며 출생 직후 바로 서울로 이사하였으므로, 남원에서의 생활은 잘 알지 못하였다.

한편, 남원국악원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증언이 있다.

> 지금 남원 국악, 본래 남원, 옛날 일정기 때는 에, 조합이란게 잇었는데, 그 때는 기생제도가 잇었거든. 이 조합이 광한루 옆에 춘향각 있지? …중략… 해방이 돼서는 없어졌지만은. 애당초 국악원을 시작한 것은, 이일우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 …중략… 그 분이 애당초 각 요정에. 그 때만해도 전부다 색시들을 두고 사업을 했거든.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애. 남원엔 다 있었었어. 옛날엔 남원에는 그렇게 안하면 장사가 안됐어. (국악원) 시초는 이일우란 분이 거기서 인자 소리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이것을 한 번 맨들라고 했는디, 되는 것이간디? …중략… 저 남원에 신정동이란데, 왕정동. 거 가서 조광옥씨가 있어. 조광옥씨 여동생이 조금앵이라구 아주 소리를 잘 하는 분이라. 거 아주 유명한 분이여. 소리 잘 허는 분이여. 그 오빠가 조광옥씨라고, 그 분을 원장을 시켜갖고. 명기호텔 앞에 집을 하나 얻어갖고. 김영운씨, 그 분을 강사로 두고 인자 소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17]

이 글에 의하면, 남원지역에 권번이 있었고, 그 전통과 연결하여 국악원을 일

15) 송방송, 앞의 글, 1670쪽.
16) 박황, 『판소리 이백년사』(사사연, 1987), 188쪽.
17) 「강영수 구술 채록」, 『남원국악사』(국립민속국악원, 2008), 9쪽.

으켜 보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조광옥을 원장으로 하여 남원국악원이 태동하였고, 조광옥의 여동생이 조금앵이라 한다. 그러나 이 글의 조금앵은 학계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조농옥의 동생 조금앵과는 동명이인으로 볼 수 있으며, 조농옥 및 조금앵에게는 조광옥이라는 오빠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서울로 이주한 이래로 남원 지역의 국악과는 관련을 맺은 바 없다.

마지막으로, 박황은 조농옥이 송만갑과 정정렬에게 소리를 배웠다고 적고 있다.

> 5년간 송만갑의 지도를 받고 〈수궁가〉, 〈심청가〉, 〈흥보가〉 세 마당을 완전히 이수하고, 13세 때 정정렬의 지침으로 〈춘향전〉을 전수하였는데, 그 때 벌써 그녀의 이름이 어른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만큼 그 기량은 숙달하였다.[18]

이에 더하여, 조농옥은 이동백에게도 소리를 배웠다 한다.[19]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피겠지만, 조농옥의 방송 및 음악 기록에 의하면, 그녀가 가장 즐겨 불렀던 단가는 〈강상의 둥둥〉인데 이 단가는 정정렬이 작곡한 단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조농옥이 경성방송국에서 총6차례나 부른 〈삼고초려〉 대목은 송만갑이나 정정렬보다는, 이동백에게서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20]

정리하면, 조농옥의 본명은 조판순이며, 조농옥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기 전에 한 때 '초향'이라는 예명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것이 그녀의 본명으로 잘못 알려진 듯하다. 1920년 무렵 전라북도 남원에서 출생하여, 남원에서 소리를 먼저 익힌 이후에 1930년대 초 서울로 상경하여 본격적으로 소리를 익히고 활동하였다. 남원에서의 소리 학습은 남원권번의 김정문에게서 학습하였을 것이라 추정될 뿐, 정확한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다. 서울에서는 경운동에 거주하였으며, 송만갑・정정렬・이동백에게 소리를 학습하였으나 이들 모두에게 전바탕소

---

18) 박황, 앞의 글(1976), 158~159쪽.
19) 손태도, 앞의 글, 464쪽.
20) 조농옥의 소리 학습에 대한 부분은, 그녀가 남긴 음원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과 비교가 선행되어야 보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이는 향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리를 제대로 학습하였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단편적인 소리 습득 및 교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2) 20세기 전반 음악 활동

(1) 조농옥의 음악 활동과 관련한 기존 논의

조농옥과 관련한 기존 논의에서 그녀의 음악 활동은 1933년 조선성악연구회 창립발기 때 김초향·박록주 등과 함께 동참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21] 이는 조선성악연구회와 관련한 박황의 기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창악인의 단결만이 판소리와 창극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또 그것만이 사는 길임을 절실하게 깨달은 정정열은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등과 제휘하고 그동안 양성한 인재를 집단하기 위하여 1933년 서울 관훈동 4번지에서 창악인과 기악(음악)인을 규합하므로 조선성악연구회를 발족시켰는데, 초창기의 진용은 다음과 같다.
>
>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열 오태석 정남희 김재선 강태홍 조상선 박종기 한주환 임방울 김연수 황창원 정광수 조영학 정원섭 박상근 백낙준 신쾌동 강성제 한범수 김준섭 김초향 김여란 박록주 임소향 박초월 김소희 조농옥 한산월 김일선 박소군 성미향 김임수
>
> 등등인데 이와 같이 4~5년 사이에 남녀중견의 배출이 많았던 것은 정정열과 송만갑의 후배양성에 대한 노력의 결과인 것이며, 이는 창악발전의 기틀을 이루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22]

이 기록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수정되어야 할 것은, 조선성악연구회의 창립 연도는 1933년이 아니라 1934년 5월 11일이라는 것이다.[23] 그리고 박황의 기

---

21) 송방송, 앞의 글, 1670쪽; 최동현, 앞의 글, 16쪽.
22) 박황, 앞의 글(1987), 205~206쪽.
23) 「조선일보」 1939년 3월 15일자 기사에 의하면, 조선성악연구회는 소화9년 5월 11일에 창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소화9년이란 1934년이다(김성혜, 앞의 글, 325~326쪽).

록 이외에 조선성악연구회의 창립과 관련된 기록에서 조농옥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다.

> 이 귀한 고곡음악을 영구히 보존하고, 장래하지 않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송만갑(宋萬甲)・정정렬(丁貞烈)・김창룡(金昌龍)・한성준(韓成俊)・오태석(吳太石)・김용승(金容承)・김종기(金宗基)・김동강(金東剛)・박녹주(朴綠珠)・김채련(金彩蓮)・심상건(沈相健)・강태홍(姜太弘) 등 13명으로 더불어 논의 화합하여 성악원이라는 명칭으로 성악연구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회원 38명을 얻어 부서를 또한 조직하게 되었으니, 이사제로 이사장(理事長)을 이동백씨, 상무이사에 정정렬, 회계에 한성준, 서무 김승용 씨 등이 추천되어 성악에 연구부, 기악에 연구부, 교습부, 흥행부, 외교부 등의 부(部)를 세우고 성악 연구에 정진하게 된 것이 현금(現今)의 조선성악연구회로 … [24]

> 쇠퇴하여 가는 조선 고래의 향토음악을 진흥 보급하기 위하여 송만갑・이동백・김창룡・정정렬・김용승・이화중선・박녹주・김동강・오태석・김종기 등 사계의 동지 및 유지들의 발기로 11일 오전 11시에 시내 공평동 29번지에서 조선음악연구회를 발기총회 및 창립총회를 개최한 결과 사무소를 시내 공평동 29번지로 설치하기로 하고 이사 이동백 외 14씨를 선정하였다 한다.[25]

조선성악연구회의 발기인 중 여성으로는 판소리 창자 이화중선과 박록주, 그리고 기악 명인 김채련이 등장하는데, 이들과 조농옥의 연배를 비교하면 박록주는 1905년, 이화중선은 1898 혹은 1899년, 김채련은 1899년생으로, 1920년을 전후하여 출생한 조농옥과는 연배가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농옥을 이들과 동급의 창립 발기인의 하나로 볼 수는 없고, 단원에 속하는 인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농옥이 조선성악연구회의 단원이 된 시점도 1934년 창립 당시가

24) 『조광』 1939년 5월호, 5권 5호, 통권431, 330~33쪽; 이달재, 「이동백과 조선 음악: 그의 은퇴와 팔십 후의 조선 성악회」, 『여명의 국악계』(세광음악출판사, 1989), 118~123쪽에 복간.
25) 「조선일보」 1934년 5월 13일자.

아니라 그보다 몇 년 뒤로 추정할 수 있는데, 위 박황의 글 중 밑줄 친 부분에 의하면 “이와 같이 4~5년 사이에 남녀중견의 배출이 많았던 것은 정정열과 송만갑의 후배양성에 대한 노력의 결과”라 하여 ‘초창기의 진용’이라고는 하나 처음 창립 당시가 아니라 몇 년 이후의 명단으로 생각해볼 수 있고, 그러한 점은 박황의 다음 글에서도 확인된다.

>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렬 등의 주동 아래 1933년 조선 성악 연구회가 서울 관훈동 4번지에서 창립되었다. 다시 2년 뒤에는 박녹주의 활동과 전남 순천 김종익의 특지로 익선동 157번지로 자리를 옮기고, 여기에 국악계의 명인 명창들이 총집결하게 되었다. 그 당시의 진용으로는 창악부에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렬의 위시하여 한성준, 오태석, 임방울, 김연수, 조상선, 정광수, 조영학, 김준섭, 김초향, 박녹주, 김여란, 임소향, 김소희, 조농옥 등의 남녀 명창과, 기악부에 박상근, 강태홍, 김종기, 정남희, 김금암, 박종기, 한주환, 신쾌동 등 남녀 명인 명창이 무려 130여 명이라는 찬란한 진용으로 구성되었던 것이다.[26]

위 기록에 의하면, 조선성악연구회가 창립된 이후에 익선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고, 여기에 국악계의 명인 명창들이 총집결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익선동 당시의 진용 중 창악부 가장 마지막에 조농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조농옥은 조선성악연구회 초창기가 아닌 익선동 시절 합류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또한, 조선성악연구회가 익선동을 자리를 옮긴 정확한 시기는 박황의 기록에서는 1933년 창립 이후 2년 뒤라 하였으니 1935년이 되나, 조선성악연구회는 창립 당시 공평동 29번지에 있다가, 1934년 9월 시내 관훈동 4번지로 옮겼고, 1936년 5월 낙원동을 거쳐, 1936년 6월에 다시 관훈동으로 이사, 마지막으로 1937년에 익선정 159번지에 자리 잡은 후 1940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27] 결과적으로 조농옥의 조선성악연구회 합류 시점은 1937년 무렵이나 그보다 약

26) 박황, 앞의 글(1976), 161쪽.
27) 김성혜, 앞의 글, 332쪽.

간 앞선 시점일 수 있다.

조선성악연구회의 공연 기록에서도 초창기인 1934년과 35년의 기록에는 조농옥의 이름이 발견되지 않고, 1936년 8월 28~29일 조선일보사가 조선성악연구회의 찬조를 얻어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한 수해구제 구악대회에서 처음으로 조농옥의 이름이 보인다.[28] 그리고 1937년부터 1939년 조선성악연구회 공연 기록에는 다시 조농옥의 이름이 없고, 1940년 3월 16일 조선일보 본사 대강당과 17일 부민관 대강당에서 조선성악연구회 주최로 이루어진 구제명창대회에서 여자부에 조농옥의 이름이 등장한다.[29]

1939년의 『조광』에 실린 「李東白과 朝鮮 音樂-그의 隱退와 팔십 후의 朝鮮聲樂會」라는 글에는 다음과 같이 조선성악연구회의 중심인물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에서도 조농옥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는다.

> 그러면, 현재 이 회원 중에 명창은 누구를 꼽나? 이동백 외에 대선생(大先生)으로 모시는 김창룡씨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밖에 조상선(趙相鮮) 씨의 소리도 일류의 명창에 속하기에 부끄럽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여자 명창으로는 박녹주(朴綠珠), 임소향(林小香), 오비취(吳翡翠), 박초월(朴初月), 김소희(金素姬), 김여란(金如蘭)이가 있고, … [30]

즉, 조농옥이 1936년 8월 무렵과 1937년 조선성악연구회 소속이었던 것은 분명하되, 1934년과 1935년 조선성악연구회 공연이나 발기인 명단에 이름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녀가 처음으로 단원이 된 시점은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조농옥이 소리판에서 주목을 받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박황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

28) 「조선일보」 1936년 8월 27일자.
29) 「조선일보」 1940년 3월 10일자.
30) 각주 25)와 동일.

1935년 그녀의 나이 16세 때 조선 극장에서 열렸던 전국 남녀 명창 대회에 제일 어린 나이로 일등을 수상하여 청중을 놀라게 하였는데 이것이 그녀가 소녀 명창으로서의 명성을 떨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그 해 바로 콜럼비아 레코오드 회사와 계약하고 음반에 취입하여 더 한층 화제거리가 되었다.[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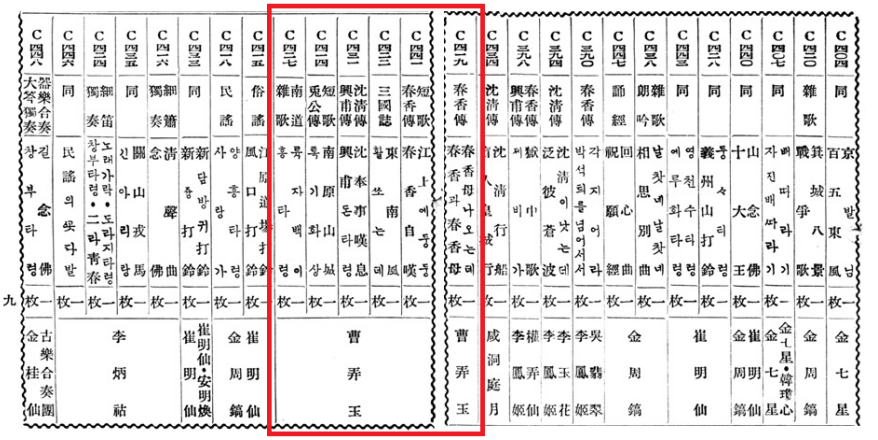
위 기록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제기되는 의문은, 1935년 콜럼비아 회사와 계약하고 음반을 취입하였다고 하는데, 조농옥이 남긴 음반[32]은 1937년에 녹음되었다.[33] 음반의 발매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콜럼비아 매월신보[34] 1938년 1월 9일자에 조농옥 음반에 대한 홍보 기사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즉, 1935년 조농옥이 음반을 취입하였다는 기록은 수정되어야 한다.

31) 박황, 앞의 글(1976), 159쪽.

32) Regal C414 단가 남원산성, 토공전 톡기화상
Regal C419 춘향전 춘향모나오는데, 춘향과춘향모
Regal C422 삼국지 동남풍, 활쏘는데
Regal C431 심청전 심봉사자탄, 홍보전 홍보돈타령
Regal C441 단가 강상에둥둥, 춘향전 춘향자탄

33) 노재명, 『판소리 음반사전』(이즈뮤직, 2000), 366쪽.

34) “매월신보는 음반회사마다 월간으로 발행하던 소책자나 전단지 형태로 발행된 음반 광고지이며, 대부분 무가지였다. 매월신보에는 그달에 발행된 신보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 이전에 발매된 음반의 목록을 싣기도 하였다. … 매월신보 자료를 읽을 때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데, 그달의 신보 음반은 책자의 발매일과 일치하지만, 기발매 목록은 그 이전에 이미 발매되어 유통되고 있는 음반을 종합해서 수록했기 때문에 음반의 실제 발매일은 책자의 발매일보다 앞서는 것이다.”[배연형, 『한국유성기음반 1907~1945: 5권 해제・색인』(한걸음더, 2011), 146~1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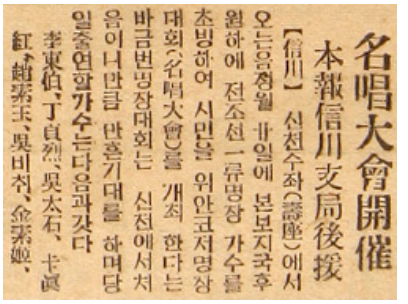


〈사진 1〉 콜럼비아매월신보 1938년 1월 9일[35]

또한 1935년 조농옥이 조선극장에서 열린 전국남녀명창대회에서 1등을 하였다는 것 역시 공식적인 기록이 발견되지 않으며, 「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신보」 그 어디에서도 1935년 조선극장에서 열린 전국남녀명창대회에 자체에 대한 기사도 찾을 수 없다. 더구나 당시의 명창대회라는 것이 등수를 가르는 경연대회의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음악 감상회 성격의 공연이되 많은 명창들이 출연하는 형태의 공연을 이르는 것이었다는 점에 의거할 때, 조농옥이 1935년 조선극장에서 열린 전국남녀명창대회에서 1등을 하였다는 사실 역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35년 2월 19일자와 11월 26일자 「조선중앙일보」의 기사가 눈에 띤다.

35) 한국유성기음반 홈페이지(http://www.78archive.co.kr/v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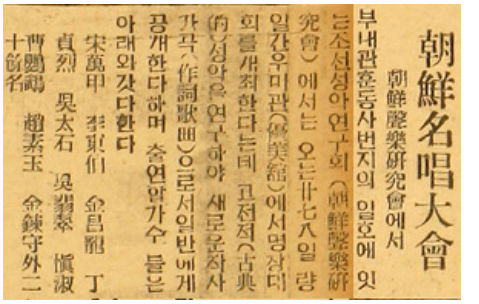
名唱大會開催

本報信川支局後援

【信川】 신천수좌(壽座)에서 오는음정월 十일에 본보지국후원하에 전조선一류명창 가수를 초빙하여 시민들을 위안코저명창대회(名唱大會)를 개최 한다는 바금번명창대회는 신천에서처음이니만큼 만흔기대를 하며당일출연할가수는다음과갓다

李東白、丁貞烈、吳太石、卞眞紅、趙素玉、吳비취、金素姬、

〈사진 2〉「조선중앙일보」 1935년 2월 19일자



朝鮮名唱大會

朝鮮聲樂研究會에서

부내관훈동사번지의 일호에 잇는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研究會)에서는 오는十七八일 량일간우미관(優美館)에서명창대회를개최한다는데 고전적(古典的)성악을연구하야 새로운작사가곡(作詞歌曲)으로서일반에게 공개한다하며 출연할가수 들은 아래와갓다한다

宋萬甲 李東白 金昌龍 丁貞烈 吳太石 吳碧蓮 愼淑 曹鶴鶴 趙素玉 金鍊守外二十餘名

〈사진 3〉「조선중앙일보」 1935년 11월 26일자[36]

2월 19일의 기사는 조선중앙일보 신천수좌에서 본보지국 후원 하에 명창대회를 개최한다는 기사로, 이동백·정정렬 등과 함께 조소옥(趙素玉)이 출현하며, 11월 26일의 기사는 조선성악연구회 주최로 우미관에서 명창대회를 개최한다는 기사인데 역시 조소옥(趙素玉)의 이름이 보인다. 조소옥은 1913년 전북 남원 출생이며 조상선의 사촌[37]으로, 어려서 남원권번의 소리선생인 김정문에게 소리를 학습한 인물이다.[38] 즉, 남원 출신이라는 점과 김정문에게 소리를 배운 점에서 조소옥과 조농옥은 서로 공통점을 갖되, 조소옥이 조농옥보다 조금 앞선 인물이고, 조소옥과 사촌지간인 조상선이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바, 조농옥보다는 조소옥이 조선성악연구회 내에서 좀 더 큰 입지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혹 박황이 『판소리소사』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조농옥과 조소옥을 혼동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일이다.

세 번째로, 조농옥이 1936년 2월 조선성악연구회 직속단체로 창극좌 창단 시에 함께 창극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36년 조선성악연구회의 홍보전 공연에 출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36) 『매일신보』1935년 11월 26일자에도 동일한 공연의 홍보 기사가 있다.
37) 송방송의 글에는 조소옥을 조상선의 사촌 조카라고도 하고, 사촌 동생이라고도 하였다. 다만, 조소옥은 1913년생이고 조상선은 1909년생으로, 연배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38) 송방송, 앞의 글, 1693쪽.

창극좌에 입단하여 창극 〈춘향전〉의 향단이 역으로 귀염을 받으며 대선생들의 기예와 더늠을 익혀 갔다.[39]

조선성악연구회에서는 춘향전과 심청전이 대성공을 거두게 되자, 본격적인 창극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1936년 2월 성악연구회 직속 창극단으로 창극좌를 조직하고 주로 중견급이 이를 담당하였다. 이때부터 송만갑, 이동백, 김정열 등 원로들은 성악연구회에서 기거를 같이하며, 오로지 후배양성과 곡(曲)과 조(調)의 정로(正路)를 찾으며 새로운 방향을 연구하면서 고전의 창극화에 진력하였는데 당시 창극좌의 인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오태석, 정남희, 조상선, 임방울, 김연수, 신쾌동, 강태홍, 배남종, 김세준, 김재선, 한주환, 정광수, 김준섭, 임소향, 박록주, 박초월, 김소희, 조농옥, 김임수, 김주 등등 남녀 50여 명으로 총 지휘는 이동백, 기획은 김용구(金容九) 였다.[40]

박황의 위 기록은 이후의 문헌에서 대체로 반복되는데, 조농옥이 1936년 조선성악연구회의 홍보전 공연 때 출연하였다고도 한다.[41]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선일보」[42]와 「매일신보」를 중심으로 1934년 조선성악연구회가 창립한 이래로 1940년까지의 창극 공연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1930년대 후반 조선성악연구회 창극공연

창극	공연일시	장소	출연진
홍보전	1934.11.6	동양극장	춘향:차홍녀, 몽룡:황철, 향단:김선영, 춘향모:김선초, 방자:심영, 변학도:박제행, ?:서단영, 장님:박제행, 조창:이동백・조금선
춘향전	1936.1.24	동양극장	

39) 박황, 앞의 글(1976), 159쪽.
40) 박황, 앞의 글(1987), 210쪽.
41) 송방송, 앞의 글, 1670쪽.
42) 김성혜, 「『조선일보』 의 국악기사(1)－1920년~1940년」, 『한국음악사학보』 제12권(한국음악사학회, 1994), 249~288쪽; 김성혜, 「『조선일보』의 국악기사(2)－1920년~1940년」, 『한국음악사학보』 제13권(한국음악사학회, 1994), 205~268쪽.

배비장전	1936.2.9~11	동양극장	송만갑, 이동백, 김창룡, 정정렬, 한성준, 정원섭, 박종기, 오태석, 한○종, 김세준, 김용승, 김남희, 정남희, 조명수, 황대홍, 조상선, 조학선, 장향승, 흡비취, 김소희, 조소옥, 이기화, 김애란, 이강선, 조계선, 신숙, 김만수, 오소연, 임소향 이상
유충렬전	1936.6.8~11	부민관	충렬:정남희, 충렬부인:이계선, 정한담:강태홍, 최일귀:조상선, 충렬부:오태석, 충렬장인:이동백 그 외에 창으로 나오시는 분: 송만갑, 이동백, 정정렬, 김창렬
춘향전	1936.9.24~28	동양극장	지휘:이동백・송만갑, 연출:정정렬, 각색(김용승) 신관사또:김창룡, 이도령:정남희, 춘향:박녹주, 춘향모:임소향, 방자:오태석, 향단:김임수, 운봉:이동백, 임실:정정렬, 곡성:송만갑, 옥사정:심상건, 급창:서홍구, 집사:정원섭, 수형리:한성준, 사령:김세준・조남승, 통인:도점이, 집장사령:강태홍, 행수기:조앵무, 기생:이규선・성수향・이옥화 외 수십명
유충렬전	1936.10.2~3	광무극장	각색:김용승, 감독:이평, 촬영:이신웅, 무대장치:이춘
홍부전	1936.11.6~10	동양극장	지휘:이동백・송만갑, 연출:정정렬, 각색:김용승 놀보:오태석, 홍보:정남희, 놀보처:임소향, 홍보처:박녹주, 놀보자식:성수향, 홍보자식:서홍구・조남승・강태홍・김세준, 삼월이:김임수, 초장:조상선, 역군:조남승・강태홍, 생열:김연수, 상연:정원섭, 장라영:조진영・이금조・조현자・한산월・김초옥, 사당패:조진영・이금초・한산월・김초옥・조현자, 장수:조남승
심청전	1936.12.15~17	동양극장	심봉사:정정렬, 황봉사:김창룡, 심청:박녹주, 뺑덕어미:임소향
춘향전	1936.12.18~20	동양극장	
심청전 춘향전 배뱅이굿	1936.12.23~24	금전대좌	
심청전 춘향전	1936.12.24~28	영등포	
춘향전 심청전	1937.1.31~2.2	금천대좌	
숙영낭자전	1937.2.26~3.4	동양극장	각색:김용승, 연출:정정렬, 지휘:송만갑・이동백・김창룡 효과:한성준・정원섭, 장치:김소향 출연:정정렬, 이소향, 정남희, 박녹주, 오태석, 임소향, 약40여명
배비장전	1937.3.3	동양극장	이동백, 송만갑 등
편시춘	1937.6.21~25	동양극장	각색:김용승, 연출:정정렬, 노래:송만갑・이동백・김창룡・정정렬・한성준 출연:오태석, 정남희, 조상선, 이세춘, 신쾌동, 김연수, 정원섭, 서홍구, 박녹주, 이소춘, 임소향, 김임수, 성미향 외 20여명[43]
춘향전	1937.9.16~21	동양극장	

43) 「매일신보」 1937년 6월 11자 기사에는 출연진 오태석, 정남희, 조상선, 김세준, 신쾌동, 김연수, 정원섭, 서홍구, 박록주, 이소향, 임소향, 김임수, 성미향 외 남녀 20명으로 되어 있어, 「조선일보」와 비교하여, 이세춘 대신 김세준이, 이소춘 대신 이소향이 기록되어 있다.

토끼타령	1938.3.13~17	동양극장	용왕:조상선, 토끼:임방울, 자라:김연수, 자라모:이소춘, 자라처:성미향, 자라○:박녹주, 잔나비:오태석, 여우:조영학, 외 30명 출연
춘향전	1938.5.14	동양극장	
심청전	1938.5.15	동양극장	
흥부전	1938.5.16	동양극장	
옹고집	1938.8.8~12	동양극장	총지휘:이동백・송만갑 옹고집:김연수, 거짓옹고집:오태석, 옹고집모:임소향, 옹고집처:박녹주, 하인(마당쇠):조상선, 아들:성미향, 하녀(보배):김란주, 성주:김창룡, 형리:정원섭, 도승:강태홍, 중:정남희・신쾌동・조영학・김방순・서홍구・한갑득・한남종
어촌야화	1938.10.4~5	동양극장	
춘향전	1938.10.6~9	동양극장	
심청전	1938.10.10~12	동양극장	
춘향전	1939.1.29~2.3	동양극장	각색:김용승, 지휘:이동백・김창룡, 고수:한성준 도령:정남희, 춘향:박녹주, 월매:임소향, 향단:한산월, 방자:오태석, 후배사령:조상선, 통인:오농희・김옥○, 급창:서홍구・조영학, 군로사령:오태석・성○○, 우촉사령:김방○, 도사령:한남종・심상건, 사령:김세준・황대홍, 수기:이정업, 옥남정:조산선, 허봉사:강태홍, 곡성:김세준, 운봉:강태홍, 군졸:전원, 중방:김세준, 기생:성미향・김란주・김화순, 호방:강조원, ○방:정원섭, 행수기생:김만수, 기숙:김만수, 성대인:김월중선, 농옥:조향옥
춘향전	1939.10.7~17	동양극장	이도령:정남희, 성춘향:박녹주, 월매:임소향, 향단:김주, 방자:오태석, 변진사:조상선, 행수기:이기화, ○○○:임종성, 기생:김난옥, 여영:김봉, ○주:성미향 외 40명
옥루몽	1940.2.20.~3.2	제일극장	양창곡:정남희, 강남홍:김○희, 황여옥:강장원, 연옥:성미향, 윤형문:김연수, 무부(갑):이정업, 무부(을):오태석, 소부인:김봉, 윤소저:김주, 양현:조상선, 허부인:임소향, 황소저:한산월, 춘월:김란주, 도화:한봉희, 춘성:서홍구, 학시인:조영, 문사:김세준, ○○:한남종 외 다수, 동자:한갑득, 갑사:배남○ 외 다수, 기녀 다.

조선성악연구회는 창극 흥보전 공연을 시작으로, 춘향전・심청전・배비장전・유충렬전・옹고집전・숙영낭자전・토끼타령・옥루몽 등 다양한 작품의 창극 공연을 해마다 수차례 진행하였다. 그러나 조선성악연구회 창극 공연의 출연진 명단에서 조농옥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발견되지 않는다. 특히 1936년 조선성악연구회의 흥보전 공연에 참여하였다고 하는데, 1936년 11월 6~10일까지 동양극장에서 공연되었던 흥부전 출연자 명단에 조농옥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표 2〉 박황의 '조선성악연구회 창극좌 단원'과 신문자료의 조선성악연구회 창극 출연자 명단

박황, 『판소리 이백년사』	「조선일보」「매일신보」 기사
강태홍, 김세준, 김소희, 김연수, 김임수, 김주, 박록주, 배남종, 신쾌동, 오태석, 이동백, 임방울, 임소향, 정남희, 조상선	강태홍, 김세준, 김소희, 김연수, 김임수, 김주, 박록주, 배○종, 신쾌동, 오태석, 이동백, 임방울, 임소향, 정남희, 조상선
김용구, 김재선, 김준섭, 박초월, 정광수, 조농옥, 한주환	
	강장원, 강조원, 김난옥, 김남희, 김란주, 김만수, 김방순, 김방○, 김 봉, 김선영, 김선초, 김소향, 김애란, 김옥○, 김용승, 김월중선, 김창룡, 김초옥, 김화순, 김○희, 도점이, 박제행, 박종기, 서단영, 서홍구, 성미향, 성수향, 성○○, 송만갑, 신 숙, 심상건, 심 영, 오농희, 오소연, 이강선, 이계선, 이규선, 이금초, 이기화, 이세춘, 이소춘, 이소향, 이옥화, 이정업, 임종성, 장향승, 정원섭, 정정렬, 조계선, 조금선, 조남승, 조명수, 조소옥, 조앵무, 조 영, 조영학, 조진영, 조학선, 조향옥, 조현자, 차홍녀, 한갑득, 한남종, 한봉희, 한산월, 한성준, 한○종, 황대홍, 황철, 흡비취,

창극좌의 구성인으로 박황이 기록하고 있는 인물들과 신문 기사를 통해 조선성악연구회 창극에 참여한 인물들의 명단을 비교하면 위 〈표 2〉와 같다. 이 두 명단을 비교하여 보면, 강태홍 이하 15인의 명단은 두 자료 모두에 나타나지만, 김용구 이하 7인은 박황의 기록에만 보이고, 강장원 이하 70명은 신문의 홍보 기사에만 등장한다. 신문의 공연 홍보 기사에는 각 창극의 배역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만큼 그 기록을 사실이라 믿을 수 있는 바, 조농옥을 포함하여 박황의 기록에만 조선성악연구회 창극좌의 단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들이 실제로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창극 활동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1943년 2월 3일 「매일신보」 기사에서 비로소 조농옥의 이름이 확인된다.

이 기사는 조선성악연구회·창극좌·화랑이라는 세 단체가 합동으로 공연한 "창극단체합동 제1회 중앙공연"에 대한 기사이다.[44]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주요

44) 「매일신보」 1942년 8월 28일 기사에 창극좌와 화랑이 합동하여 조선창극단을 결성하였다는 기사가 있고, 「매일신보」1942년 11월 4일자 기사에는 조선성악연구회 직영 창극좌와 창극단 화랑이 합동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기로 하였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고신문검색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kinds.or.kr/)

唱劇團體合同第一回中央公演
古典歌劇決定版
沈淸傳과 春香傳
五日부터四日間 民館에서

從來의 朝鮮歌劇研究會 唱劇座 花郎의 三團體가 劇團體統制의 當局 指導意思를 나어서 合同하야 朝鮮唱劇團이라는 强力陣을 이룬 뒤에 斯方面의 唯一한 權威團體로서 朝鮮古典의 歌劇을 위한 研鑽을 행오는바 이번 合同中央公演第一回의 大公演을 本社興業部後援을 어더서 오는 五日부터 四日間 晝夜二回식 府民館大講堂에서 갖기로 하는데 上演物은 朝鮮歌劇의 二大古典劇인 春香傳 沈淸傳으로서 처음 二日間은 春香傳九幕十九場이요 다음 二日間은 沈淸傳五幕六場으로서 어느것이나 劇界의 異彩로서 獨特한 豪華版을 이룰것이다 여기에 音場하는 主要出演者들을 紹介하면 金演洙 朴水實 吳大石 朴正明 丁南希 蔡寶植 韓相鮮 徐鴻九 白鶴奉 韓一興 崔明坤 韓甲得 咸元鎬 方泰珍 曹鶴實 韓鎭仲 安華玉 丁元燮 韓鼎鎭 金泰姬 朴泰香 金鶴洙 金順姬 鄭愛順 吳雲仙 成文春 方淑仔 曹華玉 江南月 等外多數가 音場키로 되여있다

〈사진 4〉「매일신보」 1943년 2월 3일자

출연자 소개 부분을 보면, '김연수, 박영찬, 오태석, 박구명, 정남희, 채찬식, 조상선, 서홍구, 백점봉, 한일섭, 최명곤, 한갑득, 성완목, 방태진, 조몽실, 조한중, 안기옥, 정원섭, 한정국, 김소희, 박소향, 성우춘, 방연이, 조농옥, 강남월 등 외 다수'라고 하여 조농옥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즉, 조농옥이 조선성악연구회·창극좌·화랑 세 단체 중 하나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박황의 기록에서 조농옥이 조선성악연구회 직속단체인 창극좌에 속하여 활동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조농옥이 조선성악연구회 창극좌에서 활동한 것은 맞으나, 1936년 창극좌 창단 시에 함께 창극 활동을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 시기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만, 조선성악연구회의 8월 28~29일 수해구제 구악대회에 출연하였던 바, 1936년 창극좌 창단 시에 합류하면서 조선성악연구회에 속하게 되고, 이로서 1936년 8월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구악대회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1937년 대동가극단 시절 조농옥이 임방울·최옥산·박초월 등이 출연한 춘향전 공연에서 향단 역을 맡았다고 한다.[45] 대동가극단은 판소리를 중요한 레퍼토리로 삼아서 일종의 창극을 연행하면서 놀이로 삼던 집단으로, 판소리와 창극뿐 아니라 판줄·승무·신파극·땅재주·서커스 등을 한 입체적인 근대기의 전통가극단이다.[46] 이들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전국을 떠돌면서 공연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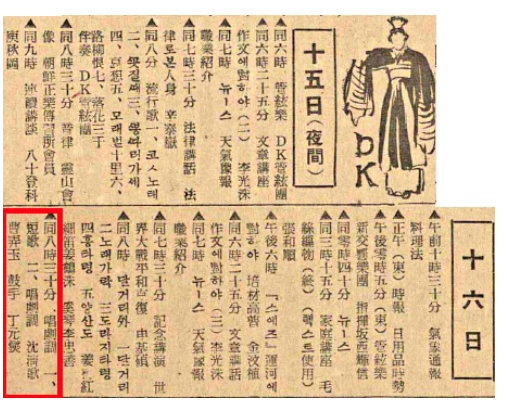
45) 송방송, 앞의 글, 1670쪽.
46) 김헌선, 「과천 찬우물 소리꾼 임정란(林正蘭, 1943~)과 그 가문의 예술 시대」, 『민속연구』 제28집(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 2014), 11~12쪽.

였는데, 이 단체에서 활동하였던 하진옥이라는 이의 증언에 의하면 대동가극단에서 활동한 중요한 판소리 명창들로 김연수・임방울・이화중선・박초월・박녹주・김소희・안채봉・박동진・홍강수・박후성・장영찬・임명옥・임옥분・임명복 등이 있었다고 하고,[47] 조농옥의 이름은 없다. 조농옥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농옥이 활동을 일찍 접어 오늘날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조농옥과 관련한 논의들에서 조농옥이 조선성악연구회의 창극좌나 대동가극단에서 매우 비중있는 인물이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하진옥이라는 이가 비교적 많은 판소리 창자들의 이름을 나열하였음에도 조농옥의 이름이 없는 점은 의아하다.

결과적으로 박황의 기록으로부터 비롯하는 조농옥에 대한 여러 내용들은 좀 더 명확한 근거 자료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조농옥의 20세기 전반 활동 양상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하다.

(2) 20세기 전반 자료에 근거한 조농옥의 음악 활동

① 경성방송국 활동


十五日(夜間)
▲同六時 雪絃樂 DK雪絃團
▲同六時二十五分 文章講座 作文에對하야(二) 李光洙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職業紹介
▲同七時三十分 法律講話 法律보는人身 辛奉獻
▲同八分 波行歌一、코ㅅ노레 二、왓것세三、왕짜리가세 四、巨恕五、모래밭十里六、路傍戲七、落花三千 伴奏 DK雪絃團
▲同八時三十分 普律 靈山會像 朝鮮正樂傳習所會員
▲同九時 演藝講座 八十登科 興狄國
十六日
▲午前十時三十分 氣象通報 料理法
▲正午(東) 時報 日用品時勢
▲午後零時五分(東)雪絃樂 新交響樂團 指揮坂西輝信
▲同零時四十分 뉴ー스
▲同三時十五分 家庭講座 毛絲編物(終)(뻬ㅅ트使用) 張和順
▲午後六時 「스에즈」運河에對하야 埃材論菅 金汶植
▲同六時二十五分 文章講話 作文에對하야(三) 李光洙
▲同七時 뉴ー스 天氣豫報 職業紹介
▲同七時三十分 記念講演 世界大戰平和克復 申基植
▲同八時 댁거리의 一댁거리 二노래가락 三도라지타령 四零타령 五양산도 裴ㅂ紅 經伴 裴等李思善
▲同八時三十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沈海歌 曹琴玉 鼓手 丁元燮

〈사진 5〉「매일신보」 1935년 11월 16일

「매일신보」에서 조농옥의 이름이 처음 발견되는 기사는 1935년 11월 16일자의 경성방송국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기사이고, 이후 경성방송국 프로그램과 관련한 신문 기사에서 조농옥의 이름이 자주 발견된다.

경성방송국의 국악방송곡

47) 위의 글, 13쪽.

목록에서 조농옥의 출연 기록을 정리하여 보면, 1935년부터 43년까지 꾸준히 활동한 흔적이 보이고, 1944년에는 기록이 없다가 1945년 6월 한 차례 방송한 것이 확인된다.

〈표 3〉 조농옥의 경성방송국 출연 목록

연도	월일	곡목	함께한 출연자
1935 (5회)	4.14	단가 아서라세상사, 창극조 톡기타령	정원섭(고수)
	5.29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흥부쫓겨나는데, 톡기타령	정원섭(고수)
	5.30	보렴,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신숙
	7.15	단가 옥루사창, 창극조 흥부가	지용구(고수)
	11.16	단가, 창극조 심청가	정원섭(고수)
1936 (10회)	1.3	화초사거리, 육자백이, 농부가	오태석, 정남희, 신숙, 신금향 등
	1.29	보렴, 육자백이	조소옥
	2.23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삼고초려	정원섭(고수)
	5.7	보렴, 새타령, 육자백이, 개고리타령, 홍타령	변진홍
	6.21	단가 초한가, 창극조 삼고초려	정원섭(고수)
	8.10	창극 춘향전 중 신관도임하는데	정원섭, 오태석, 김세준, 정남희, 조소옥
	8.28	보렴, 육자백이, 홍타령	변진홍
	9.22	단가, 창극조	
	10.18	단가 초한가, 창극조 삼고초려	지용구(고수)
	11.28	단가 강상에 둥둥, 창극조 춘향전	정원섭(고수)
1937 (9회)	1.16	보렴,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조농선, 박종기(고수)
	2.5	보렴,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조농선, 박종기(고수)
	3.1	단가,	
	4.4	단가 강상에 둥둥, 창극조 흥부가	지용구(고수)
	5.31	단가 강상에 둥둥, 창극조 적벽가	지용구(고수)
	6.18	새타령,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조농선, 박종기(대금)
	8.15	단가 강상에 둥둥, 창극조 춘향가 중 춘향모나오는데	한성준(고수)
	8.29	새타령, 육자백이	조농선
	12.2	단가 강상에 둥둥, 창극조 적벽가	지용구(고수)
1938 (7회)	1.7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흥부가	정원섭(고수)
	2.16	단가 운담풍경, 창극조 삼고초려	한성준(고수)
	4.29	단가 대장부, 창극조 흥부가	한성준(고수)

	5.15	새타령, 육자백이, 홍타령	조농선
	7.28	단가 운담풍경, 창극조 삼고초려	정원섭(고수)
	9.7	단가, 창극조 춘향가 중	정원섭(고수)
	12.15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춘향가	한성준(고수)
1939 (6회)	1.21	단가 천하태평, 창극조 삼고초려	한성준(고수)
	2.20	보렴,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	조농선
	3.8	보렴, 육자백이, 홍타령, 개타령	조농선
	4.24	홍타령, 육자백이, 개고리타령	조농선
	5.6	단가 어화청춘, 창극조 심청가	정원섭(고수)
	5.13	새타령, 육자백이, 홍타령	조농선
1940 (5회)	4.4	단가 천하태평, 창극조 적벽가	한성준(고수)
	4.28	단가 강상에 둥둥, 창극조 춘향가	한남종(고수)
	5.31	단가 강상에 둥둥, 창극조 흥부가	한성준(고수)
	8.7	단가 강상에 둥둥, 창극조 춘향가	정원섭(장고)
	12.13	단가 장부한, 창극조 적벽가	이정업(고수)
1941 (4회)	8.4	새타령, 육자백이, 홍타령	이○희, 한갑득(현금)
	8.10	풍년가, 박연폭포, 오봉산타령, 사발가, 베틀가	변영식, 최수성(단소)
	8.16	곡명없음	김세준(고수)
	8.31	단가 강상가, 창극조 심청가 심청이 사당에 하직	김세준(고수)
1942 (3회)	10.26	단가 장부한, 창극조 심청가	이정업(고수)
	11.26	단가 운담풍경, 창극조 적벽가	이정업(고수)
	12.13	새타령, 육자가	박초선
1943 (3회)	3.5	사철가, 베틀가, 천안삼거리, 사발가, 노들강변	변영식
	4.13	山念佛, 水車の唄, 舟唄, 四季の歌	김태운, 김창식(세적)
	6.19	경기가요	변영식
1945 (1회)	6.27	창극조 〈곡명없음〉	김광채(고수)

즉, 1935년 4월 14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1935년 5회, 1936년 10회, 1937년 9회, 1938년 7회, 1939년 6회, 1940년 5회, 1941년 4회, 1942년 3회, 1943년 3회, 1945년 1회의 방송 기록이 보인다.

방송에서 그녀가 부른 곡목은 단가와 판소리 및 잡가·민요로, 장르별로 곡목과 방송 횟수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조농옥의 경성방송국 방송곡 레퍼토리

장르		곡목 및 방송횟수
단가		아서라세상사(1), 어화청춘(5), 옥루사창(1), 초한가(2), 강상에둥둥(9), 운담풍경(3), 대장부한(3), 천하태평(2), 단가(곡목없음)(4)
판소리	춘향가	신관도임, 춘향모나오는데(1), 춘향가(5),
	심청가	심청사당하직(1), 심청가(3)
	수궁가	토끼타령(2)
	흥부가	흥부쫓겨나는데(1), 흥부가(5)
	적벽가	삼고초려(6), 적벽가(5)
		창극조(2)
잡가		보렴(8), 육자백이(16), 홍타령(12), 개고리타령(8), 화초사거리(1), 새타령(7)
민요		농부가(1), 풍년가(1), 박연폭포(1), 오봉산타령(1), 사발가(2), 베틀가(2), 사철가(2), 천안삼거리(1), 노들강변(1), 산염불(1), 경기가요(1)

조농옥은 단가와 판소리 및 남도잡가를 주 레퍼토리로 삼고 있는데, 단가 중에서는 〈강상에 둥둥〉을 가장 즐겨 불렀고, 그 외에 〈어화청춘〉·〈운담풍경〉·〈대장부한〉 등 적어도 8곡 이상의 단가를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었다. 판소리는 다섯 바탕을 고루 소리하였는데, 적벽가 중 〈삼고초려〉 대목을 특히 여러 차례 방송하였다.

조농옥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그녀는 송만갑에게 흥보가·심청가·수궁가를 학습한 뒤 정정렬에게 춘향가를 공부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를 조농옥의 경성방송국 레퍼토리와 맞추어 보면, 단가 중 〈강상에 둥둥〉은 정정렬이 창작한 단가로서 조농옥이 정정렬에게 학습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조농옥의 동생 조금앵에 의하면 조농옥이 이동백에게도 소리를 배웠다고 하는데,[48] 그녀가 방송에서 주로 소리한 〈삼고초려〉 대목을 이동백에게 학습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단가와 판소리 외에도 조농옥은 남도잡가를 여러 차례 방송하였고, 그 중에는 〈육자백이〉와 〈홍타령〉을 가장 많이 방송하였으되, 〈보렴〉·〈개고리타령〉·〈새타령〉 역시 다수 방송하였다. 특이한 점은 1941년 한 차례와 1943년 세 차

48) 손태도, 앞의 글, 464쪽.

례 조농옥이 경기민요를 방송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1940년까지는 단가・판소리・남도잡가만을 부르던 그녀가 갑자기 1941년 이후로 경기민요를 레퍼토리를 삼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 동명이인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조농옥이 경성방송국 방송 당시 함께 한 이들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조농옥과 함께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이들

역할	출연자 명단
고수	정원섭(12), 지용구(5), 박종기(2), 한성준(7), 한남종(1), 김세준(2), 이정업(2), 김광채(1)
기악반주	박종기(대금,1), 한갑득(현금,1), 최수성(단소,1), 김창식(세적,1)
단가 판소리	
창극	오태석(1), 김세준(1), 정남희(1), 조소옥(1),
잡가	신숙(2), 오태석(1), 정남희(1), 신금향(1), 조소옥(1), 변진홍(2), 조농선(9), 이○희(1), 박초선(1)
경기민요	변영식(3), 김태운(1)

조농옥은 단가나 판소리를 부를 때는 고수만 대동하여 혼자 소리하였는데, 고수 중에서는 정원섭과 가장 여러 차례 함께 하였고, 한성준과 지용구 외 여러 고수들과 호흡을 맞추었다. 반면, 잡가는 혼자 방송한 적이 없고 모두 다른 이들과 함께였는데, 조농선과 함께한 횟수가 가장 많으며, 그 외에는 변진홍과 신숙[49]이 각 2회, 조소옥 등의 창자들과 각 1회씩 함께 방송하였다. 조농옥과 가장 여러 차례 잡가를 부른 조농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는데, 「매일신보」 1936년 10월 6일자 기사에 광주권번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다.[50]

49) 1916년 뼈대 있는 가문의 서출(庶出)로 태어난 그녀는 어려서 함양(咸陽)으로 나와 성장하면서 권금주에게 소리지침을 받았고, 13~14세 때 진주의 이선유(李善裕)와 유성준(劉成俊)에게도 수업을 받았으며, 1931년 남원에서 열린 제1회 남원명창대회 때 3등으로 입상하였다. 17~18세 무렵 상경하여 1935년 11월 27~28일 조선성악연구회 주최 추동명창대회 때 출연했다. 1936년 2월 9~11일 조선성악연구회(朝鮮聲樂硏究會)의 가극 배비장전(裵裨將傳) 공연 때 그녀는 송만갑・이동백・김창룡 등과 함께 출연했다고 조선일보(朝鮮日報) 1936년 2월 8일자에 전한다(한겨레음악대사전, 2012. 11. 2., 도서출판 보고사).

50) 광주권번이 요릿집으로부터 기생화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기생들에게 시간대(時間代)를 지불하지 않아, 소속 기생 10명이 권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 때 소송

경기민요는 총 4차례 방송 중 3회를 변영식과 함께하였고, 김태운과 함께 1회 방송하였다. 변영식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김태운은 경서도명창으로, 서울 산타령패의 하나인 삼개패(麻浦牌)의 모갑이로 이름난 소리꾼이었으며, 1930년대 최경식의 주동으로 조직된 조선가무연구회의 박춘재・권경춘・최정식 등과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51] 1932년 11월 30일을 시작으로 경성방송국 기록에서도 자주 확인된다.[52]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이들과 함께 1940년대 경기민요를 소리한 인물이 본고의 대상이 되는 조농옥이 맞는지,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재고해 보아야 할 것 같다.

② 음반 녹음

조농옥이 남긴 음반은 1937년 콜럼비아 음반회사에서 녹음한 10면의 음반이다.[53]

Regal C414 단가 남원산성

Regal C414 토공전 톡기화상

Regal C419A 춘향전 춘향모나오는데

Regal C419B 춘향전 춘향과춘향모

Regal C422 삼국지 동남풍

Regal C422 삼국지 활쏘는데

Regal C431A 심청전 심봉사자탄

Regal C431B 홍보전 홍보돈타령

Regal C441A 단가 강상에둥둥

Regal C441B 춘향전 춘향자탄

을 제기한 기생 중 조농선(趙弄仙)의 이름이 보인다.(「매일신보」 1936년 10월 6일자/ 한국언론진흥재단 고신문검색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inds.or.kr/)

51) 송방송, 앞의 글, 407쪽.

52)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민속원, 2000), 122쪽.

53) 이 중 'Regal C431A 심청전 심봉사자탄'과 'Regal C431B 홍보전 홍보돈타령'을 제외하고 나머지 8대목은 1994년 신나라에서 발매된 CD 「SP시대의 판소리 여류명창 4」로 복각되었다.

음반에 녹음한 곡목을 경성방송국에서 조농옥이 방송한 곡목과 비교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조농옥의 음반과 방송 곡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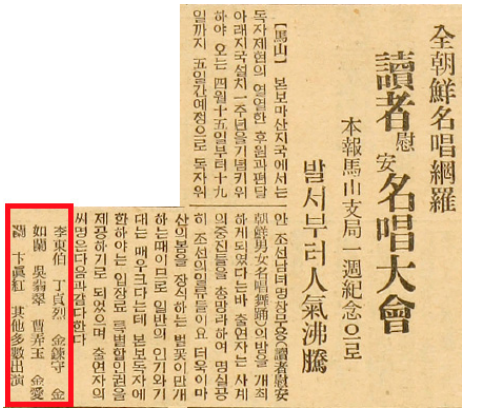
장르	음반	곡목 및 방송횟수	
단가	남원산성 강상에둥둥	아서라세상사(1), 어화청춘(5), 옥루사창(1), 초한가(2), 강상에둥둥(9), 운담풍경(3), 대장부한(3), 천하태평(2), 단가(곡목없음)(4)	
판소리	춘향모나오는데 춘향과 춘향모 춘향자탄 심봉사자탄 토끼화상 홍보돈타령 동남풍 활쏘는데	춘향가	신관도임, 춘향모나오는데(1), 춘향가(5),
		심청가	심청사당하직(1), 심청가(3)
		수궁가	토끼타령(2)
		흥부가	흥부쫓겨나는데(1), 흥부가(5)
		적벽가	삼고초려(6), 적벽가(5)
			창극조(2)
잡가		보렴(8), 육자백이(16), 흥타령(12), 개고리타령(8), 화초사거리(1), 새타령(7)	
민요		농부가(1), 풍년가(1), 박연폭포(1), 오봉산타령(1), 사발가(2), 베틀가(2), 사철가(2), 천안삼거리(1), 노들강변(1), 산염불(1), 경기가요(1)	

조농옥은 경성방송국에서 남도잡가를 여러 차례 방송하였으나 음반에는 단 한 곡도 녹음하지 않고, 단가와 판소리만을 녹음하였다. 단가는 〈남원산성〉과 〈강상에 둥둥〉을 녹음하였는데, 〈강상에 둥둥〉은 경성방송국에서도 총 9차례나 방송하여 조농옥이 가장 즐겨 부른 단가임이 확실하다. 다만, 〈남원산성〉은 방송국 기록에는 보이지 않아, 실제로 조농옥이 보유하였던 단가 곡목은 방송 기록에 보인 8곡에서 한 곡 더 추가된다.

판소리는 춘향가 중 〈춘향모나오는데〉 대목이 음반과 방송 모두에 확인되어, 이 대목을 조농옥이 즐겨 불렀음이 확인된다. 또한 경성방송국 목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춘향과 춘향모〉, 〈춘향자탄〉, 〈심봉사자탄〉, 〈토끼화상〉, 〈홍보돈타령〉, 〈동남풍〉, 〈활쏘는데〉 대목을 음반을 통하여 조농옥이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적벽가 중 〈삼고초려〉 대목은 경성방송국에서는 총 6차례나 부를 정도로 조농옥이 즐겨 부른 대목이었으되, 음반에는 이 대목이 빠져있어 아쉽다.

③ 공연

20세기 전반 신문 기사를 통해 확인되는 조농옥의 공연 기록은 1936년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던 조선중앙일보 마산지국에서 있었던 명창대회가 가장 앞선다.


全朝鮮名唱網羅
讀者慰安名唱大會
本報馬山支局一週紀念으로
발서부터人氣沸騰
〔馬山〕 본보마산지국에서는 독자제현의 여일한 후원과편달 아래지국설치 一주년을기념키위 하야 오는 四월十五일부터十九 일까지 五일간예정으로 독자위 안 조선남녀명창무용(讀者慰安 朝鮮男女名唱舞踊)의밤을 개최 하게되였다는바 출연자는 사계 의중진들을 총망라하여 명실공 히 조선의일류들이요 더욱이마 산의붐을 장식하는 벌꿋이만개 하는때이므로 일반의 인기와기 대는 매우크다는데 본보독자에 환하야는 입장료 특별할인권을 제공하기로 되었으며 출연자의 씨명은다음과같다한다
李東伯 丁眞烈 金鍊守 金如圖 吳翁翠 曹弄玉 金愛鶴 卞眞紅 其他多數出演

〈사진 6〉「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5일자

이 공연은 조선중앙일보 마산지국 설치 1주년을 기념하는 독자위안 조선남녀명창무용의 밤을 개최한 것으로, 이동백·정정렬·김난수·김여란·오비취·조농옥·김애란·변진홍 외 다수가 출연하였다. 이어 신문 기사의 조농옥 공연 기록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조농옥의 20세기 전반 공연 기록(신문 기사 참조)[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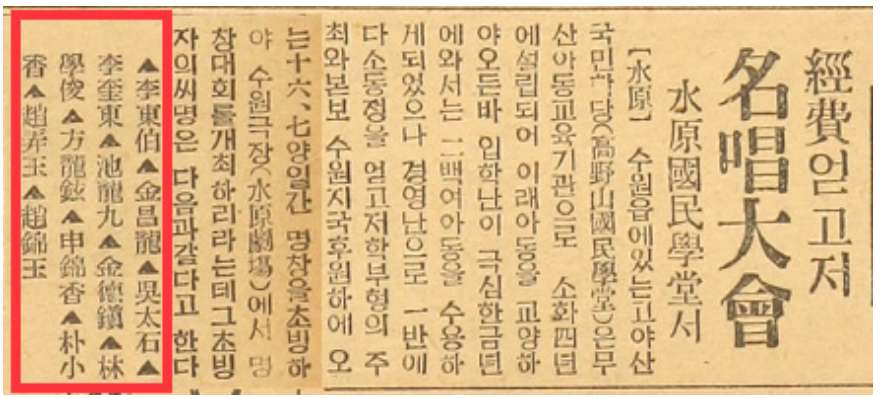
연도	월일	공연명/주최/장소	함께한 출연자	홍보 신문
1936	4.15~19	공연: 조선남녀명창무용의 밤 주최: 조선중앙일보 마산지국 장소:	이동백, 정정렬, 김난수, 김여란, 오비취, 조농옥, 김애란, 변진홍 외 다수	조선중앙 4.5
	6.16~17	공연: 명창대회 주최: 수원 고야산국민학당, 조선중앙일보 수원지국 장소: 수원극장	이동백, 김창룡, 오태석, 이규동, 지용구, 김덕진, 임학준, 방용현, 신금향, 박소향, 趙弄玉, 조금옥	조선중앙 6.14
	8.28~29	공연: 수해구제 구악대회 주최: 조선일보 찬조: 조선성악연구회 장소: 조선일보 본사 대강당	이동백, 김창룡, 송만갑, 정정렬, 오태석, 강태홍, 정남희, 박녹주, 신금홍, 김소희, 임소향, 박옥엽, 이규선, 조소옥, 조농옥, 장향란 외 수명	조선 8.27
1938	3.12~13	공연: 여류명창대회 장소: 부민관	박녹주, 신금향, 박초선, 임소향, 이춘화, 조금옥, 조소옥, 김유앵, 김동수,	조선 3.12

54) 김성혜, 앞의 글 참조; 송방송·신성웅, 『한국근대음악 사료색인집』(민속원, 2005); 한국언론진흥재단 고신문검색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inds.or.kr/).

			조농옥, 오비취, 특별출연: 김초향, 배설향	
	10.16~17	공연: 명창대회 주최: 조선일보 전남지사 장소: 광주극장	이동백, 오태석, 정남희, 김소희, 조농옥, 임소향 광주권번 소속 예기 총출동	조선 10.20
1939	6.29	공연: 이동백 은퇴기념음악회 주최: 조선일보사 사업부 장소: 개성	조선성악연구회 찬조출연: 박녹주, 오태석, 김순희, 조농옥, 이옥향, 이금초, 김난옥 등	조선 6.28
1940	3.17	공연: 한해구제명창대회 주최: 조선성악연구회 후원: 조선일보사 사업부 장소: 부민관	김창룡, 오태석, 정남희, 김연수, 조상선, 조영학, 한갑득, 이 영, 한성준, 정원섭, 신쾌동, 김난주, 박녹주, 신금홍, 김옥조, 임소향, 이옥향, 김여란, 조농옥, 박 선, 김소희, 박초월, 신금향, 조소옥, 김옥○, 조규선, 이소희, 김일선, 김초향, 박종기, 강장원 등	조선 3.10 3.12 3.19
1943	2.5~8	공연: 창극단체합동 제1회 중앙공연 장소: 부민관 곡목: 춘향전(5~6일), 심청전(7~8일)	김연수, 박영찬, 오태석, 박구명, 정남희, 채찬식, 조상선, 서홍구, 백점봉, 한일섭, 최명곤, 한갑득, 성완목, 방태진, 조몽실, 조한중, 안기옥, 정원섭, 한정국, 김소희, 박소향, 김난주, 김순희, 한애순, 오운○, 성우춘, 방연이, 조농옥, 강남월 등	매일 2.3

1936년에 세 차례, 1938년에 두 차례, 1939년과 1940, 1943년에 각각 한 차례의 공연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신문 기사에서 드러나는 것은 조농옥의 공연 활동 일부일 것이고, 이 외에도 다수의 공연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점은, 1936년부터 이동백・정정렬・김창룡 등 당대 최고의 명창들과 함께 공연하였다는 것이고, 여류창자들로는 박녹주・김소희・김여란・박초월 등과 함께 하였다. 즉, 조농옥은 1930년대 중후반부터 판소리계에서 주목받는 여류창자의 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 다만, 1943년 2월의 창극단체합동 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명창대회 성격의 공연에서 조농옥의 이름이 확인되는 바, 창극에도 동참하였으나 당시에는 창극보다는 혼자서 독창으로 단가나 판소리를 공연하는 것에 좀 더 두드러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단, 수원국민학당에서 경비 마련을 목적으로 개최한 명창대회에 대한 「조선중앙일보」 1936년 6월 14일자 기사를 보면, 출연한 이들로 이동백, 김창룡, 오태석을 비롯하여 조농옥의 이름도 보이는데, 조농옥의 한자가 趙弄玉으로 기록되어 있다.


經費얻고저
名唱大會
水原國民學堂서
[水原] 수원읍에있는고야산
국민학당(高野山國民學堂)은무
산아동교육기관으로 소화四년
에설립되어 이래아동을 교양하
야오든바 입학난이 극심한금년
에와서는 二백여아동을 수용하
게되었으나 경영난으로 一반에
다소동정을 얻고저학부형의 주
최와본보 수원지국후원하에 오
는十六、七양일간 명창을초빙하
야 수원극장(水原劇場)에서 명
창대회를개최하라라는데그초빙
자의씨명은 다음과같다고 한다
▲李東伯▲金昌龍▲吳太石▲
李奎東▲池龍九▲金德鎭▲林
學俊▲方龍鉉▲申錦香▲朴小
香▲趙弄玉▲趙錦玉

〈사진 7〉 조선중앙일보 1936년 6월 14일자

경성방송국 기록에서도 1935년 5월 29일과 5월 30일 두 차례의 기록에서 성의 한자가 '曹'가 아닌, '趙'로 기록되어 있는데, 방송에서 부른 곡목을 살펴보면 단가 〈어화청춘〉과 창극조 〈홍부쏫겨나는데〉, 〈톡기타령〉와 남도잡가 〈보렴〉, 〈육자백이〉, 〈홍타령〉, 〈개고리타령〉을 불렀다. 이들 곡목은 평소 조농옥이 경성방송국에서 즐겨 연행하였던 대목으로, 조농옥의 주 레퍼토리와 일치한다. 또한 위의 1936년 6월 14일자 신문과 1935년 5월 두 차례의 경성방송국 기록을 제외하고는 趙弄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성의 한자를 달리하는 다른 창자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단순 오기일 가능성이 크다.

경성방송국과 음반 발매, 신문의 공연 기사를 통해 1930~40년대 조농옥의 활동을 살펴보면, 조농옥은 1935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35년 4월 14일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여 단가와 창극조 〈톡기타령〉을 부른 것을 시작으로 동연 5월과 7월 11월에 네 차례 더 방송에 출연하였고, 1936년에는 10회, 1937년에 9회, 1938년에 7회, 1939년에 6회, 1940년에 5회 출연하였다. 1941년부터는 출연횟수가 줄어 한 해에 3~4회 정도 출연하였으나, 이 무렵에는 방송이 결하였던 날도 많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에 따라 조농옥의 출연 기록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937년에는 콜럼비아 음반회사에서 단가와 판소리 총 10대목을 녹음·발매하였고, 신문에서도 1936년 3차례, 1938년 두 차례, 1939년과 1940년, 1943년에 각각 한 차례씩 공연

기사가 확인된다. 즉, 조농옥은 1935년부터 1940년 무렵까지, 1930년대 중후반에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고, 1945년 경성방송국 출연이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그녀의 활동 기록이다.

조농옥이 보유하였던 소리는 단가로는 〈아서라세상사〉, 〈어화청춘〉, 〈옥루사창〉, 〈초한가〉, 〈강상에 둥둥〉, 〈운담풍경〉, 〈대장부한〉, 〈천하태평〉, 〈남원산성〉 9곡이 확인된다. 그 중 〈강상에 둥둥〉과 〈남원산성〉은 음반이 남아있고, 특히 〈강상에 둥둥〉은 경성방송국에서도 총 9차례 방송하여 조농옥이 가장 즐겨 부른 곡목이었음이 확인된다. 〈강상에 둥둥〉은 정정렬이 작곡한 단가로, 조농옥과 정정렬의 곡을 비교하면 사설도 약간의 가감이 이루어질 뿐 거의 유사하고, 선율도 큰 골격은 유사하되 조농옥이 좀 더 넓은 음역을 사용하면서 곡에 변화를 주는 정도이다.[55] 즉, 조농옥이 정정렬에게서 소리를 배웠다는 기존의 기록이 소리로서 증명된다.

조농옥이 보유하였던 판소리는 춘향가 중 〈춘향모 나오는데〉·〈춘향과 춘향모〉·〈춘향자탄〉, 심청가 중 〈심봉사자탄〉, 수궁가 중 〈토끼화상〉, 흥보가 중 〈흥보돈타령〉, 적벽가 중 〈동남풍〉·〈활쏘는데〉가 음반으로 전하고, 그 외에도 심청가 중 〈심청사당하직〉, 흥부가 중 〈흥부쫓겨나는데〉, 적벽가 중 〈삼고초려〉 대목은 경성방송국에서 부른 바 있다. 즉, 판소리 다섯 바탕 전체를 눈대목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여성 창자들이 잘 부르지 않는 소리인 적벽가에도 능했음을 알 수 있는데, 〈삼고초려〉 대목은 음반으로는 녹음하지 않았으나 경성방송국에서는 총 6차례나 방송하였다. 조농옥이 송만갑과 정정렬 외에 이동백에게도 소리를 배웠다는 증언이 있는 바, 〈삼고초려〉 대목이 이동백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가 하나, 음원이 없어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아쉽다.

55) 조농옥과 정정렬의 〈강상에 둥둥(강상풍월)〉 선율 비교는 2016년 5월 28일 제79차 판소리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필자의 「단가 〈강상풍월〉의 제 형태와 전승」이라는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3. 맺음말

20세기 전반 우리 전통 음악 여러 분야에서는 여류 음악인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문화 흐름을 주도하였다. 판소리 분야에서도 여성 창자들이 대거 등장하여, 박록주・이화중선・김소희와 같은 대표적인 여류명창들을 배출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등장한 수많은 여류 명창들 중 오늘날 알려져 있는 인물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본고의 대상이 되는 조농옥 역시 라디오방송과 극장 공연・음반 발매 등 활발한 활동을 하며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으나, 1950년 이후 일찍 활동을 접으면서 오늘날 국악계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조농옥에 대해서는 그간 박황이 남긴 기록을 중심으로, 그녀의 본명은 조초향이며, 1920년 서울에서 태어나 8살 무렵부터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소리를 배우기 시작하여, 조선성악연구회 직속 단체인 창극좌에서 활동하였고, 송만갑과 정정렬에게 학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농옥의 본명은 조판순이며, '초향'은 '농옥'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기 전에 한 때 사용한 예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서울 출신이 아니라 1920년 무렵 전라북도 남원에서 출생하여 1930년대 전반 본격적인 소리 학습 및 활동을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였고, 소리를 처음 접한 것 역시 서울이 아니라 남원이다. 남원에서의 소리 학습은 남원권번의 김정문에게서 학습하였을 것이라 추정되나 정확한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고, 서울에 상경한 이후에는 송만갑과 정정렬뿐 아니라 이동백에게도 소리를 배웠다.

조농옥은 조선성악연구회 단원으로, 조선성악연구회 직속단체인 창극좌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조선성악연구회의 정기공연이나 창극 공연 관련 기사에서 조농옥의 이름이 확인되지는 않고, 다만 1936년과 1940년 조선성악연구회 주최로 열린 구제명창대회에서만 조농옥의 이름이 확인된다. 즉, 그녀가 조선성악연구회 창립 당시부터 함께 하였거나, 창극 활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은 아닌 듯하다.

조농옥은 1935년 4월 14일을 시작으로 1945년까지 꾸준히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였으며, 1937년에는 콜럼비아 음반회사에서 단가 두 곡과 판소리 8대목을

녹음하였다. 단가 중에서는 〈강상에 둥둥〉을 가장 즐겨 부른 점에서 정정렬에게 소리를 배웠다는 것이 확인되며, 그 외에도 〈남원산성〉, 〈어화청춘〉, 〈대장부 한〉, 〈운담풍경〉 등 9곡의 단가를 레퍼토리로 삼았다. 판소리는 춘향가를 비롯하여 다섯 바탕의 눈대목들을 고루 배웠으며, 춘향가 중 〈춘향모 나오는데〉 부분을 즐겨 불렀다. 여류 창자들이 흔히 잘 부르지 않는 적벽가에도 능하였던 바, 〈동남풍〉과 〈활쏘는 데〉는 음반으로 남겼고, 〈삼고초려〉는 경성방송국에 출연하여 총6회나 소리하였다. 즉, 그녀는 당시의 여느 권번 출신 여류 판소리 창자들과 비교하여 소리의 공력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남도잡가 〈육자백이〉, 〈흥타령〉, 〈개고리타령〉, 〈보렴〉 및 민요도 잘 불렀다.

1950년대 이후에는 동생 조금앵·조성실(조금례)과 함께 여성국극 활동을 주로 하였고, 1971년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조농옥의 동생 조금앵 역시 여성 국극의 대표적인 인물로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2012년 별세하였고, 현재는 조성실이 옥당국극보존회에서 간간이 활동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립민속국악원(2008). 「강영수 구술 채록」, 『남원국악사』. 국립민속국악원.

권도희(2004). 『한국 근대음악 사회사』. 민속원.

김성혜(1990)., 「조선성악연구회의 음악사적 연구」, 『한국음악학논집』 제1집. 한국음악사학회.

_____(1994). 「『조선일보』의 국악기사(1) – 1920년~1940년」, 『한국음악사학보』 제12권. 한국음악사학회.

_____(1994). 「『조선일보』의 국악기사(2) – 1920년~1940년」, 『한국음악사학보』 제13권. 한국음악사학회.

김헌선(2014). 「과천 찬우물 소리꾼 임정란(林正蘭, 1943~)과 그 가문의 예술 시대」, 『민속연구』 제28집. 안동대학교민속학연구소.

노재명(2000).『판소리 음반사전』. 이즈뮤직.
박 황(1974).『판소리소사』. 신구문화사.
_____(1987).『판소리 이백년사』. 사사연.
배연형(2011).『한국유성기음반 1907~1945: 1~5』. 한걸음더.
손태도(2005).「1920~60년대 전통 공연물들에 대한 면담 자료」,『역사민속학』 제21호. 한국역사민속학회.
송방송(2012).『한겨레음악대사전』. 보고사.
윤석달(2006).「SP시대 인기 명창들, 신금홍・권금주・신숙・조농옥」,『명창들의 시대』. 작가정신.
이달재(1989).「이동백과 조선 음악: 그의 은퇴와 팔십 후의 조선 성악회」,『여명의 국악계』. 세광음악출판사.
장사훈(1984).『국악대사전』. 세광음악출판사.
제정화(2008).「벽소 이영민의 순천가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동현(1994).「SP시대의 판소리 여류 명창들4 음반 해설서」. 신나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2000).『경성방송국 국악방송곡 목록』. 민속원

계성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gyeseong1882.es.kr/).
서울교동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skyodong.es.kr/).
한국유성기음반 홈페이지(http://www.78archive.co.kr/v2/).
한국언론진흥재단 고신문검색서비스(http://www.kinds.or.kr).

조성실 증언.(1차 면담: 일시-2015년 10월 9일 11시. 장소-옥당국악국극보존회. 진행-신은주 / 2차 면담: 일시-2016년 4월 11일 14시. 전화 인터뷰)

투고일자 : 2016. 4. 22. ▌ 심사기간 : 2016. 5. 2.~2016. 5. 18. ▌ 수정 및 게재확정일자 : 2016. 5. 22.

【ABSTRACT】

Cho, Nong-Ok – Female Singer of Pansori during former half of 20c

Shin, Eun-Joo
(Asistant Preofessor, Dep. of Korean Music, College of Art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n the former half of 20c, in the various fields of our traditional music, female singers were emerged and led a new cultural trend. In *Pansori* area also, female singers were emerged en masse and typical great singers like *Park, Rok-Ju*, *Lee, Hwa-Joongseon*, *Kim, So-Hee* were turned out. However, female singers who were known to the public at present among numerous great singers having been emerged during those times are extremely limited. *Cho, Nong-Ok* who is the target of this study also left a lot of achievements while engaging in a positive activity including radio broadcasting, theater performance and record sales but as she closed her activity earlier after 1950, she was not well known to National traditional music circle at present.

Through the record left by *Park, Hwang* so far, it was learned that original name of *Cho, Nong-Ok* was *Cho, Cho-Hyang*, born in Seoul in 1920, started to learn pansori at *Choseon seongak yeonguhoe*(Society for Traditional Korean Vocal Music) from the age around 8 years old, engaged in an activity of *Chang-Geuk-Jwa* that is directly controlled by *Choseon seongak yeonguhoe* and learned a lesson under *Song, Man-Gap* and *Jeong, Jeong-Ryol* but actually, original name of *Cho,*

Nong-Ok is *Cho, Pan-Soon* and it is presumed that '*Cho-Hyang*' was once used as stage name before using a stage name of '*Nong-Ok*'.

In addition, she was born in *Namwon*, *Jeonbuk* around 1920, not Seoul and migrated to Seoul together with her family in order to learn pansori extensively in former half of 1930s and she first experienced pansori at *Namwon*, not Seoul. *Pansori* learning at *Namwon* is presumed to be made from *Kim, Jeong-Moon* of *Namwon Gisaeng* cooperative but its accurate record is unable to be confirmed and after coming up to Seoul, she learned pansori not only from Song, *Man-Gap* and *Jeong, Jeong-Ryol* but also from *Lee, Dong-Baek*.

Cho, Nong-Ok engaged in her activity by belonging to *Choseon seongak yeonguhoe* and activity in *Chang-Geuk-Jwa* is also confirmed as her name is appeared in 1st joint central performance of three *Changgeuk* circle including *Choseon seongak yeonguhoe*, *Chang-Geuk-Jwa* and *Hwarang*. However, in a performance based on *Choseon seongak yeonguhoe*, name of *Cho, Nong-Ok* is confirmed only in *Myeongchang contest* in 1936 and 1940 but besides, her name is not found in *Changgeuk* performance record during 1930~40s of *Choseon seongak yeonguhoe*. In other words, it seems that she neither played her role in *Choseon seongak yeonguhoe* from its foundation nor played a pivotal role in changgeuk activity.

Cho, Nong-Ok made a steady appearance in *Gyeongseong* broadcasting station starting from April 14, 1935 to 1945 and in 1937, recorded *Danga* and *Pansori* at *Columbia* record company. It was confirmed that she must have learned pansori from *Jeong, Jeong-Ryol* as she enjoyed singing <*Gangsange Dung-dung*> most willingly among *Danga*. And besides, she seemed to practice various pansoris as record shows that she sang 9 *Dangas* including <*Namwon Sanseong*>, <*Euhwa cheongchoon*>, <*Daejangbu Han*>, <*Woondam Poonggyeong*>. As for *Pansori*, she learned Noon *Daemok*(a major part) of five *Batang* evenly including

Choonhyangga.

Being also versed in *Jeokbyeokga* that is seldom sung by female singers, she left <*Dongnampoong*> and <*Hwalssoneunde*> as record and performed <*Samgochoryeo*> for total 6 times by making an appearance in broadcasting station. In other words, it is considered that her pansori work was more advanced when comparing with other female *Pansori* singers from *Gisaeng* cooperative at that time. Besides, she was also skilled in singing <*Yukjabaegi*>, <*Heung-Taryong*>, <*Gaegori Taryong*>, <*Boryeom*> that are *Jabga* and folk music.

After 1950s, she was mainly engaged in female *Gukgeuk* activity with *Cho, Geum-Aeng*, *Cho, Seong-Sil* (*Cho, Geum-Rye*), her younger sisters and died from chronic disease in 1971. *Cho, Geum-Aeng* also died from chronic disease in 2012 while engaging in a positive activity as a typical character of female *Geukgeuk* and at present, *Cho, Seong-Sil* is engaging in an activity occasionally at *Okdang Gookgeuk Bojonhoi*.

【Keywords】Cho, Nong-Ok, Cho, Geum-Aeng, Choseon seongak yeonguhoe(Society for Traditional Korean Vocal Music), Changgeuk, Gookgeuk, female Pansori singer